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2026년 제7회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기관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4:00, 26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 14명
회의 진행순서	▪ 미술작품 설치계획 및 변경계획 안건 검토 및 토의 ▪ 심의평가표 작성, 집계, 결과정리 및 발표, 심의결정서 작성
상 정 안 건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5건 5점 심의**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1건 1점 심의**
발 언 내 용	**<작품 1 Manuscript, Busan**(매뉴스크립트, 부산)**>** ▪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함. 20T 통 스텐 자재 사용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중량으로 인해 견고성이나 변형 방지 측면에서는 걱정되지 않으나, 접점이 매우 최소화되어 날렵하게 구성된 만큼 접합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안점으로 봄. 이에 대해 볼트로 조인 후 용접하고 갈아내는 표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므로 약간 안심되었음 ▪ 작품이 하부에 주차장이 있는 인공지반 위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게가 비교적 분산되어 지반이 침하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작품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게 견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음 ▪ 해당 작품은 '국제지명공모'라는 타이틀로 시공사나 기획사에서 자체 공모를 거쳐 작가를 선정하였음. 과거 부산 LH공사의 사례처럼, 자체 선정된 작가에 대해 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타당성과 기술성 등을 심의해야 할지 검토 필요. 다만, 부산 작가 또는 부산 거점 작가가 협업 참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봄.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고, 특히 '종이'라는 모티브와 그 안에 담긴 시나 문구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음

심의위원회 회의록

	▪ 현재 판재 ㎡당 무게 약 160kg 정도로 심의도서 17페이지를 보면 작품 좌측에 있는 상단과 중간 왼쪽에 있는 한 개, 한 개, 두 개로 보이는 부분이 위험해 보임. 왼쪽에 있는 두 개 합쳐진 것은 약 700~800kg를 지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접합부에 대한, 특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접합부의 상세도는 면밀히 나와야 될 것임. 아울러, 구조안전확인서에 나오는 재료와 심의도서상의 재료가 서로 상이하므로 재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작품 설치 위치가 네 개 건물 사이의 바람길에 해당하는데 바람길을 어느 정도 열어 두는 배치는 긍정적이나, 예시 사진처럼 벤치로 활용되거나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앉을 수 있는 구조라면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큼. 특히 20T 두께의 자재를 볼트와 용접으로 고정하는 방식에 있어, 폐곡면이 많아 중심부를 V자로 잡아준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폐곡면의 용접 부분 늘어남이 많아질 것으로 보임. 물론 접합 면적을 최대한 넓혀야겠지만, 현재 제출된 구조안전서류에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주지는 않아서 우려됨. ▪ 야간조명계획과 관련, 단순히 바라보는 작품이라면 아름답겠지만, 입주민의 동선을 많이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사이사이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작품이 선정될 경우 야간 조명 디자인을 체크해 주셔야 하겠음. ▪ 작품을 보면서 접합부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며, 구조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심의도서 11페이지에 실린 작가의 중국 내 기존 설치 작품 사진을 보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 있는 모습이 확인됨.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구조적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함. ▪ 공공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촉하고 교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작품이나, 심의도서 33페이지 예시처럼 시민과 주민들이 작품에 앉거나 기대어 이용하

	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판을 무작위로 쌓아 둔 형태는 자칫 시민들이 놀다가 부딪힐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 작품성을 떠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모서리 부분을 반지름을 25로 돌리든 완전히 라운드 처리하고 측면 부위를 매끄럽게 다듬는 등 보완이 필요함. 개인 작품이 아니라 시민과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작품인 만큼, 안전 보완이 선정 조건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작품 2 Infinite Pillar 20260315(인피니트 필러 20260315)> ▪ 작품이 건축 규모에 비해 왜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테인레스 스틸 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과 작가 네임 밸류를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셨을 것이라 이해함. 조형성과 절제된 형태미 등 심미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차분한 색감이 정해졌겠지만, 시의성이 낮아서 아쉬움이 있음. 작품 규모도 작고 디테일과 세련미를 갖추고 있음에도 색감이 너무 잔잔하여, 작품이기 때문에 랜드마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약간의 시의성이 고려되었으면 함 ▪ 작품 위치가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으면 함. 주변에 나무 등 수직 부재가 있고 건축물 외관의 색채도 다소 탁한 편이어서, 야간 조명을 비추더라도 미술품으로 온전히 인지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큼. 사방에서 원활하게 감상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더 적합해 보이며, 현재와 같이 녹지 안에 둘러싸인 장소는 본 작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됨 ▪ 워낙 명성 있는 작가라서 직접 세부적인 상황까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 주변의 수직형 나무들과 색감 및 형상이 유사하여 자칫 원래 있었던 것인 양 묻힐 우려가 있어 작품의 심플하고 간결한 장점이 더욱 돋보일 수 있

	도록 보다 개방된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봄 ▪ 작품을 살펴보면 사람의 눈높이나 머리 높이 정도에 날카로운 엣지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안전성이 우려됨. 작품 자체로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날카로운 돌출부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제작 단가나 가격 측면을 고려해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려 애쓴 흔적은 엿보이지만, 조형적으로 입체감이 부각되는 느낌은 다소 부족함. 아울러 작품 상단의 돌출 부위가 보행자의 평균 신장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어 안전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하부 구조가 가느다란 나무 기둥 형태로 올라와 있어 시각적인 안정감도 약해 보임 ▪ 작품의 설치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가가 임의로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공지나 건축주가 정하는 룰에 따라서 작품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 만약 작품 위치 때문에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는 작가의 권한과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음. 건축주가 해당 위치를 선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도면상 주출입구로 진입하자마자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시각적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과의 조화보다는 전체 도면으로 생각해서 최적의 지점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됨 ▪ 공동주택 배치를 보더라도 빽빽하게 조성되어 있어 작품이 위치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보임 <작품 3 You Did Well!!!!(잘했어!!!)> ▪ 작가님 전시를 여러 번 봤는데, 도넛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음. 본인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작업으로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임 ▪ 단조 기법으로 제작되는데, 철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성형

	하는 단조 작업 특성상 철판 등의 두께가 3T로 구조적 두께나 균일성이 확보하여 제작될 수 있는지 궁금함 ▪ 국내 제작의 경우 3T 규격을 보통 4T 정도로 두껍게 하여 제작하는 반면, 중국 제작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많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져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얇은 철판 부위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음. ▪ 높이가 5m인 작품 표면에 광이 너무 처져 있다보니 주간에 난반사가 많을 것 같아서 주변에 불편을 줄 수 있음 ▪ 규모가 꽤 큰 단조 제작 작품 특성상 두께가 얇아지면 구조적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데, 심의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제작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작가님이 제작 과정 관리나 체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음. 미술작품 설치확인 신청시 심의작품 제작과 설치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단순 사후 제출에 그치지 말고 제작 과정 중간중간에 철저한 감리를 거쳐 이러한 두께 편차나 품질 문제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함. 작품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느껴졌음. ▪ 비록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의 단조 기술 자체는 매우 뛰어남. 마감 광처리나 모서리, 용접 부위 등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매우 거대한 규모의 형상을 1T 수준의 얇은 두께로 구현해 낸 것을 보고 기술력에 감탄한 적이 있음. 단조 가공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작가 역시 이러한 대형 야외 설치물 시리즈 작업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음. ▪ 과거 유사한 시리즈 작품들은 표면에 페인트 등이 시럽처럼 얹어져 시각적 부담을 덜어주었던 반면, 이번 작품은 몸체 전체가 온전한 미러 재질로 이루어져 있음. 미러 마감의 경우 심의에서 항상 눈부심 문제가 거론되는데, 실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작품에 가까이 갔을 때

	주변 풍경과 하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 다행인 점은 해당 작품이 차량 동선이나 차도가 아닌 보행 전용 동선 쪽에 있어, 난반사나 눈부심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됨. ▪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 최근에 차 사고가 난 경험이 있음. 2차선 도로를 주행할 때 맞은편 차량의 상향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아찔했던 적이 있음. 해당 작품의 미러 마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음. 여름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 하부에는 본인의 얼굴이 투영되겠지만, 그 반사광이 멀리까지 퍼져나가 행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시야를 상실하는 현상까지 일으킬 수 있겠다 우려됨.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작가가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는 점은 높이 평가함. 다만, 작품이 가져올 빛의 반짝거림과 난반사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음. ▪ 심의도서 19페이지의 배치도를 보면 조형물이 위치한 주변의 101동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 주거 세대에서 해당 조형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됨. 특히 작품의 높이가 5m에 달하기 때문에, 저층부의 약 3개 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빛 반사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주거 공간은 외부 공공장소와 달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민감한 생활 공간이므로, 빛 반사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광택에도 여러 단계의 정도가 있는데, 완전히 거울처럼 사물이 선명하게 투영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표면에 헤어라인 같은 미세한 스크래치나 터치를 가미하여 단계별로 반사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음. 난반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품 고유의 은색 미래지향적 형상과 주제의식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면 처리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방향면 같은 경우 약간의 표면 터치를 가미하여 빛 반사 저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함. <작품 4 오후 다섯 시 반(PM 5:30)> ▪ 1심에서 부결된 작품과 이번 작품을 비교할 때 작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한 것 같음. ▪ 심의도서 16페이지 우측면도를 보면 말 조형물이 일직선 형태로 배치되어 단조로움. 1심 작품에 보면 말들이 모두 풀을 뜯는 모습인데, 이번 작품에는 말들의 시선이 다양한 방향을 향하도록 만들어졌음. 정면에서 바라보면 자유롭게 보이나, 우측면에 일자로 보이니 말들을 조금 엇갈리게 배치하는 방안을 권고함. ▪ 심의도서 13페이지에서 작품 배치 형태가 도드라져 보임. 지난번 부결 사유가 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시 정면성뿐만 아니라 좌측면이나 사이드뷰 등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기 좋게 구성해 달라고 의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낮거나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치와 구성은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조형물을 직접 작업하는 작가분들이 별로 없음. 작가의 작품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체성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좀 불편하지만 자기가 직접 작업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 지역 작가에 대해 평가하실 때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작품 중앙에 배치된 약 2.2m 크기의 우물 형상이 지나치게 직관적이어서 조형성을 다소 떨어뜨림. 차라리 말을 한 두 마리 더 추가를 하거나, 생동감 있는 말을 메타포로 활용하여 표현했더라면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을 것임. 아울러 현재 위치에서 중앙의 우물 형상으로 인해 햇

빛 반사각이 발생하여 인근에 눈부심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

<작품 5 Contact(컨택트)-실바람처럼, 윤슬처럼>

- 지난 심의에서 부결된 현장으로 금회 안건에서 작가가 교체될 줄 몰랐음. 기존 작가의 경우 자기복제 경향이 강해 작품에 변형을 주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음
- 이번 작품은 높이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나, 구 형태로 양감이 큰 작업임. 대개의 미술작품이 앞뒤로 납작한 편인 데 반해, 이 작품은 구 형태를 띠어 3차원적인 부피감이 있음. 작품성 역시 어디서 완전히 보지 못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진부한 정도는 아님. 심의도서에 작품 자체 무게가 약 700kg이라고 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중량이 1.8톤에서 1.9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해당 위치가 인공지반인 만큼, 안전한 하중 분산을 위해 기반을 좀 더 넓게 펼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작품이 실바람에 윤슬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형태에 잘 녹여낸 점을 좋게 봤는데, 작품 규모가 다소 작게 느껴져서 2,500㎜ 크기를 2,700㎜ 규모로 키워주면 좋겠음. 3m 이상 넘어가면 예산 상승 등 부담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케일 조정하면 좋겠음. 앞서 언급된 인공지반의 하중 한계를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규모 확대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림
- 높이만 2,500㎜이면 좀 작은 규모이긴 한데, 빵(볼륨감)이 2,500㎜이 돌아가는 거면 큰 형태임. 구 같은 경우는 제작할 때 빵이 조금씩만 커질수록 단가가 많이 올라감.
- 작품 위치 이동을 강력하게 제안 드림. 기초를 포함한 총 중량이 1.9톤에 달하는 조형물로, 조형물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설치 예정인 장소는 지하 주차장의 슬라브 위임. 슬라브에 대한 구조검토를 보면 애초에 이러한 중량물이 없는 상태로 설계 및 구조 검

토를 거쳐 지어졌으며, 이 위로 2톤 가까운 하중이 올라오게 되면 구조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하중 부담이 없는 맨 성토된 땅으로 작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함

- 현재 위치를 고수할 경우 하중 분산을 위해 철판 등을 넓게 펼치는 시공이 필요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반드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구조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조형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미흡해 보여 위험성이 크므로, 하중 부담이 없는 성토된 지반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작품 6 Everlasting Relationship 350831(영원한 관계 350831)**>**

- 원작가의 작품이 분실되어 새로운 작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원작가 간의 충분한 협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이번 심의 후 원작가와 협의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 기재되어 있음. 과거 조각 등 타 장르 작품의 분실·훼손 시 원작가에게 작품 재제작을 요청했거나, 분실되었으니 다른 작가로 대체하겠다는 명확한 내용 없이 심의를 진행하고 사후에 협의하겠다는 방식이 맞는지.
- 매년 1회씩 구군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분실된 작품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원상복구' 라는 개념이 반드시 원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기보다 '원상복구해야한다' 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건축주 측에서 먼저 원작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금액 부분에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원작가가 요구하는 금액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작가에게 의뢰하게 되었었다고 과정이 심의도서에 설명되어 있음.

	▪ 제출내용은 그 설명과 정보가 매우 모호하고 부족함. 해당 위치에 설치될 작품의 규격이나 원작가의 대략적인 가격대 등을 알 수 없어, 작가의 명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기에 매우 애매함 ▪ 어떤 작가의 작품이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 앞 공간에 무심하게 배치하는 공간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쉽고 불쾌함. 작품이 분실되었으니 다시 걸라는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태도로 보임.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충분하게 대우받지 못하긴 하지만, 건축물 미술작품 공간에서조차 작가의 권익이나 작품에 대한 배려를 잃는다는 건 상당히 불쾌함. ▪ 작품이 판매되면 작품 이미지에 대한 권한은 작가가 갖지만, 작품 자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자에게 있음. 물론, 작품 판매 시 계약서상 부기된 조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갤러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 후 판매 시 '6개월 내 재판매 금지' 등의 전매 제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 분실된 작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작가에게 무조건적인 재제작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건축주 측에서는 기존 작가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하여 조율되면 원작가와 진행하는 것이고, 조율이 안 될 경우 건축주가 소유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임. ▪ 세부적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없어서, 이러한 방식이 선례가 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가들이 불리한 처지에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 새로운 작품만을 놓고 평가해야 하는지? ▪ 위원회에서는 작품이 분실되어 새로운 작품이 들어왔으므로 들어온 작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실된 작품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음. ▪ 작품 분실로 인해 건축주 측에서 두 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을 참작해서 냉정하지 않게 심사하려고 노력

	했음. 작품의 조형성이나 설치 위치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해당 안건이 재심의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분실' 때문임. 그런데 제출된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작품이 단순히 걸려있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음. 작품을 설치한 후 일반인이 쉽게 떼어내지 못하도록 고리형태 등 고정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님. 현재의 세팅 방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도난에는 취약해 보여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따라서 도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은 보완되어야겠음. ▪ 에스컬레이터 때문이 아니라 주차장 가는 길 때문에 위치를 정한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들어갈 때 정면으로 보임. ▪ 작품위치가 출입구로 들어와서 관람하기도 애매하고 보행동선도 창을 꺾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무빙워크가 작품 끝 라인까지 설치되어 있어 시선을 왼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현재의 설치 위치는 적합하지 않음. ▪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 좋겠음. ▪ 해당 장소가 쇼핑몰임을 감안할 때 다소 차분한 느낌의 작품보다는 액티브하고 화려한 색감으로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의 작품이 현재 위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 작품이 분실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서글픔을 느꼈고, 새로운 작품 설치 위치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음. 한편으로는 작품이 분실되어야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 희망을 찾아보기는 함. 작품 자체는 괜찮고, 새로운 작품이 걸린다는 것 자체도 좋은데, 작품과 공간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과연 맞는 건지, 공간의 특성과 작품의 성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작품 자체만 놓고 봐야하는지 등 복잡한

<table>
<tr><th colspan="2">심의위원회 회의록</th></tr>
<tr><td></td><td>생각이 들었음.
▪ 정상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심의라 판단이 정확할 수는 없겠으나, 대형마트의 인테리어나 마케팅, 이미지, 브랜드를 고려했을 때 많이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 작품이 삽화 같은 느낌을 주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친숙함은 있으나, 진부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음. 단순히 평면적인 회화가 아니라 돌가루와 펄을 두껍게 입힌 마티에르가 특징인데, 현장에서 질감을 대면하면 가치를 느낄 수 있겠으나, 제출된 이미지상으로는 마티에르는 고사하고 시각적 이미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심의자료를 보면 당초 지하 2층 휴게실에서 5층까지 올라왔는데 위치상 많은 변화가 있어서, 휴게실보다는 작품 노출 빈도가 높아졌음.
▪ 부산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작가인데 작품 가격은 어떤지?
▪ 작품 가격을 살펴보면, 60호 기준 *****원이라는 금액은 작가의 활동 연배와 경력을 종합해 볼 때 크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작품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진 과정과 제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됨.
<심의 결과>
▪ 미술작품 설치계획 5건 5점 작품 중 4점 가결, 1점 부결되었으며, 변경계획 1건 1점은 가결되었음.
▪ 가결 안건의 기재의견 과반수 미만으로 조건부·권고 사항은 없으며, 부결 안건 역시 기재의견 과반수 미만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평가 기재의견은 개별 통지하겠음.</td></tr>
<tr><td>결정사항 및
표결내용</td><td>▪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 가결 4점, 부결 1점
▪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계획 ▸ 가결 1점</td></tr>
</table>